

신의 거듭난 이후의 상태를 저주상태(Under Curse Condition)로 파악하는 신학적 오해와 신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부정적인 자아상’을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자의 ‘위치와 신분’ (Position and status)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상태’ (Condition)에서는 여전히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공격 및 조상의 죄로 인해 대물림된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운호, 131

쪽). 필자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저주’ (Curse)라는 용어를 좀더 신학적으로 바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차라리 ‘대물림된 저주’라는 용어 대신에 ‘영향받은 부패성’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 신학적 혼돈을 훨씬 덜 초래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속적인 저주를 받음’으로써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이다(갈 3:13). 바울은 그 후 자신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성화과정, 즉 칭의에서 출발하여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상태(Condition of Pilgrim)를 한번도 ‘저주의 상태’ (Condition of Curse)라고 쓴 적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은혜 아래의 상태라고 강조하였다(롬 6:14). 그리고 성화의 과정 중에서 ‘영화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피력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4), ‘누가 끊으리요’ (롬 8:35)라고 거듭 승리의 확신에 잠겨 적극적인 감사와 찬양을 외치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이나 권세자들(가계 영, 악령 등의 총칭)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조상과 관련된 과거의 일로 포함되는 시간의 총칭),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공간의 총칭)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신앙의 자아상은, 거듭난 성도는 구약이나 조상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원리보다

‘이미 얻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할 때에 나온 것이다. 이런 확신이 야말로 칭의의 신분과 위치에서 영화를 지향한 성화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거듭난 자아상’ (Born Again Self-image)인 것이다.

가계의 영적 점검은 과거지향적 사고다

넷째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신앙의 원리와 실천을 강조하는데, 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의 전 3단계로,